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무궤도전차공장과 버스수리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시였다.

수도시민들의 교통문제 해결을 두고 언제나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에서 과업을 준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짧은 기간안에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만사를 제치시고 폭열이 쏟아지는 레년에



대단히 만족하며 백점만 점짜리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번에 공장을 돌아보면서도 평가하였지만 이 공장은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 이른 전국의 본보기공장이라고, 우리 나라 튼튼기계공장들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정돈된 공장이라고 치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일터를 알뜰하게 거두고 설비관리를 간지게 하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대하여 못내 만족

없는 무더위속에서 또다시 수도려객 운수부문의 현대화를 위한 현지지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뜻밖에 맞이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은 뚫어오르는 격정과 흥분으로 가슴적이며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먼저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찾으시어 새형의 무궤도전차생산정형을 료해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1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로 만든 무궤도전차를 보시고 인민들의 리용에 편리하게 일부 요소들을 개작하며 기술적특성을 보다 경신할데 대하여 주신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

쳐나신 수도려객운수국과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

으로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짧은 기간에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생산하고 시험운행을 진행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차조립직장을 찾으시어 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무궤도전차를 손색없이 정말 잘 만들었다고, 반년전에 비하여 무궤도전차의 질이 월

등하게 개선되었다고, 2단계 현대화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차체의부의 굴곡면의 가공정밀도와 옆면의 평탄도, 이음짚처리수준이 높아지고 도장도 잘하였다고, 모든 의장품들의 질과 문화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바닥과 유리고무테 등 고무제품들과 수지장식합판의 질도 좋아졌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공장들에서 생산한것이라니 더 기쁘고 더더욱 고맙다고,

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이 2단계 현대화공사까지 하면 세계적수준의 튼튼기계공장으로 전변될수 있는 전망이 확고하다고 하시면서 현지에서 2단계 현대화 방안을 료해하시고 제기되는 문제들과 해결방도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였다.

(2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 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손로동을 줄이고 무궤도전차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높일수 있게 이빠진 공정들과 필수공정, 핵심공정들을 보장하여 생산공정전반을 현대화, 자동화, 흐름선화할데 대한 문제, 프레스공정을 증시하고 잘 꾸릴데 대한 문제, 도장도안을 잘하고 도색공정을 현대화할데 대한 문제,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부단히 높일데 대한 문제, 부분품보장을 맡은 단위들에서 무궤도전차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의 2단계 현대화와 생산장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적극 밀어주겠으니 대담하고 통이 크게 목표를 세우고 2단계 현대화전투를 본때있게 전개하라고 하시면서 평

양시뿐만아니라 전국적인 무궤도전차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고 무궤도전차를 계열생산, 대량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우리 나라 륜전기계공장들을 대표할수 있는 공장으로, 나라의 려객운수문제, 대중교통운수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중추공장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송산궤도전차사업소를 찾으시어 삐스수리공장 일군들과 연구사, 기술자, 기능공들이 새롭게 만든 궤도전차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형의 궤도전차에 제작과 운영원가가 적게 드는 교류전동기를 설치하고 전동기조종변환기와 조종프로그램을 연구도입하여 차의 기동과 속도, 제동특성을 개선하

고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게 제작하였으며 바퀴와 주름련결부, 유리, 후사경, 바닥고무판, 수지장식합판, 의자 등 기계 및 전기부분품들과 의장품들을 대부분 국산화하였다는 일군들의 보고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도려객운수국과 평양무궤도전차공장, 삐스수리공장에서 인민을 위해 정말로 보람있는 큰일을 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오늘은 하늘의 별이라도 만득 기분이 들뜬다고, 년중 이렇게 기분좋은 날이 몇날이나 되겠는가고 하시며 심중에 차오른 격정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궤도전차, 궤도전차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한 수도려객운수국, 평양무궤도전차공장, 삐스수리공장과 무궤도전차바퀴, 유리와 각종 부분품들, 내부마감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한

련관단위들의 수고도 헤아려주시면서 당의 사상과 로선을 가장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결사관철해나가는 이런 로동계급이 있기에 우리에게 뚫지 못할 난관이란 없다고 하시며 무궤도전차, 궤도전차생산에 기여한 전체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밤 새형의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의 시운전을 몸소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번에 타보았을 때보다 내부환경과 의장품들의 질과 문화성이 높아지고 전차운행시 소음과 진동도 적어졌다고, 모든 기술적특성지표가 정상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만든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들이 거리를 누비며 달릴 때에는 멋있을것이라고,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바라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자는것이 바로 우리 당이라고 하시면서 수도의 려객수송문제해결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으신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여 우리 인민들이 낡아빠진 대중교통수단을 리용하며 불편을 느끼도록 하고 거리에는 택시들이 점점 늘어나는것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전망이 보인다고, 정말 만족하다고 기쁘신 마음 감추지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무궤도전차공장과 삐스수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새로운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7년 2월 20일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메기양어의 주체화,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해마다 3,000t의 메기를 생산할데 대하여 주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한 삼천메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원수님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 과학기술보급실, 종합조종실, 야외못, 종자메기호동, 후보종자메기육성호동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천메기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칠감을 발랐던 건물바깥벽에 타일을 산뜻하고 정갈하게 입히니 공장이 한결 더 환해지고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불수록 회한한 공장이라고, 생산환경의 견지에서 보나 건축미학적인 견지에서 보나 흠잡을데 없는 최고로 완벽한 공장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천메기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정책결사관철정신과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공장의 면모를 더욱 훌륭히 일신시키고 당에서 정해진 3,000t의 연간메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



한 문제, 물 립방당 메기 생산량을 계속 늘일데 대한 문제, 메기못의 수질 관리를 잘하며 갈수에도 물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 생태환경조건을 잘 보장해주어 알깨우기실수율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폐사률을 극력 줄일데 대한 문제, 호동별, 못별, 기대별 사회주의경쟁과 국가공유터망의 양어부문 자로기지를 통한 따라배우기, 따라앞서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의 관리운영과 양어부문 사업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랑동저장고에 들리시어 랑동된 메기들을 보시고 마치 금피를 쌓아놓은 것만 같다고, 정말 보배공장이라고 거듭 칭찬하시면서 온 공장이 당의 양어정책을 옹호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지향으로 심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균 300t 정도의 메기를 생산하던 공장을 개진확장하여 지난해에 3,001t을 생산하였는데 공장이 10여년동안 생산하던 량을 한해 동안에 생산한셈이라고, 인민군군인들에게 이전보다 10배에 달하는 물고기를 공급할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공장을 개진한 보람이 있다고, 현대화의 성과가 은을 내는 실리가 큰 공장이라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천메기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넉넉히 먹이시려고

메기양어의 새 역사를 펼쳐던 초시기에 건설하여주신 우리 나라 메기양어의 만아들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고 령도업적을 빛내기 위하여 당에서 품을 들여 개진 현대화한 공장인것만큼 능력대로 해마다 3,000t의 메기를 어김없이 생산함으로써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공장, 실지 덕을 보는 공장으로 명예를 떨쳐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천메기공장이 우리 나라 양어부문을 선도해나가는 기관차, 첨단양어기술보급의 선구자, 교

육자, 원종장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메기생산주기를 단축하고 사료단위를 세계적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을 계속 심화시킬데 대한 문제, 성장속도와 면역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료첨가제개발사업을 전국의 메기공장들에서 경쟁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문제, 메기생육단계별 사료처방을 과학적으로 하여 고기맛을 좋게 할데 대한 문제, 우량품종의 메기종자들을 육종하며 원종보존체계를 세워 종자메기의 퇴화를 막을데 대

장을 풀이머 생산적양양을 일으켜 공장국창건 70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공과로 맞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천메기공장을 내각이나 성, 중앙기관이 아니라 당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직 결사관철로만 대담하는것을 체질화한 인민군대가 말아보고있기에 당에서는 마음을 푹 놓고있다고 하시면서 올해에도 반드시 메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군인정신, 군인분배, 군인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금산포젓갈 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언제나 인민들의 식생활을 세심히 보살피시며 식탁에 구미에 맞는 식찬한 가지라도 더 놓아주기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젓갈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가공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인민군대에 통째로 맡겨주시였으며 이 사업을 특별히 관심하시면서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여 짧은 기간에 금산포지구를 회한하게 전변시키시고 갖가지 맛있는 젓갈품들과 물고기 간장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식료가공기지를 일떠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시며 지난해 공장에 대한 현지지도이후 집행한 과업들과 젓갈품 생산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해당 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젓갈품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입함으로써 지난해와 올해 건갱이와 가나리, 멸치, 조개젓을 비롯하여 염도와 매운맛이 다른 30여가지의 젓갈시제품들을 완성하고 7가지의 젓갈품 수백t을 생산하였으며 종업원살림집을 비롯하여 일부 건물들의 마감공사와 비품설비를 끝내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동안 많은 일을 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독특한 풍미를 가지는 젓갈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밭도적》으로 부르면서 즐겨먹어온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부식물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세 면이 바다와 접해있고 각종 수산자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서는 일



연구를 많이 한것이 알린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서해수산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여러가지 어종들로 젓갈품들을 특색있게 만들어 수도시민들과 서해안지역 인민들에게 판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제품들을 생산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수요대로 생산하여 팔아주며 인민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제품의 질적발전을 위한 착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품저장고를 찾으시고 저장고안에 마치 한복의 그림처럼 차곡차곡 packed워져있는 젓갈가공품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정말 볼만 한 맛있는 풍경이라고, 처음 건설하는 젓갈가공장이어서 생산성이 담보되었는가 하는 걱정이 없지 않았는데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젓갈제품들을 보니 자부심이 생긴다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한술이라도 보탬을 주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긍지와 보람이 차넘친다고 걱정에 겨워 말씀

썩부터 젓갈문화가 특별히 발달되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보니 가슴이 젖어든다고, 수령님께서서는 전원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기기를 회고하시며 젓갈품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고,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건갱이젓갈은 젓갈품만 잘 만들어 팔아도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는데 우리는 30여년간 수령님의 교시를 오늘날에 와서 집행하게 되였다고,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당에서 이 공장을 중시하는 의도를 깊이 새기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젓갈품들을 더 많이 연구생산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은 우리 나라 젓갈가공공업을 개척해나가는 공장, 초행길을 헤쳐나가는 공장인것만큼 련관단위들과 적극 협동하여 젓갈품의 맛을 돋우고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공장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해나가며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 세우고 선진기술을 적극 탐구도입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젓갈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식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공장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계속 강조하는것이지만 식료공장들에서는 제품의 위생안전성과 질보장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특히 젓갈은 다른 식품들과 달리 균들이 쉽게 서식할수 있는것만큼 이 사업에 대한 각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종업원들이 생산로동시 위생학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며 생산구역, 생산공정의 내외부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오염원인이 없도록 하며 원료 및 식료품첨가제, 포장재료의 보관관리도 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품전시실에 전시된 시제품들을 보시면서 가지수가 이것저것 할수 있는것은 다 해놓은것 같다고 하시면서 군침이 들게 포장도 잘하고 형식도 다양하다고, 젓갈품에 대한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서해포구의 보물고나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래도록 저장고를 거너지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젓갈품생산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여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젓갈가공품들이 팡팡 쏟아지도록 함으로써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책들이 현실에서 은이 내게 하고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본사기자



빛이 없던 조선이 동방의 강국으로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외세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확고한 터전을 마련해준 국가지도자야말로 태를 두고 길이 떠날지어야 할 영웅중의 영웅, 은인중의 은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공화국이 세계적인 전략국의 지위에 오르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나날이 꽃피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조국해방과 부강조국건설업적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백의동포 누구나 꿈이나 생시나 서로 울고웃으며 《김일성장군만세!》, 《조선해방 만세!》를 목메어 웨치던 조국해방의 그날의 함성이 오늘도 들려오는것만 같다.

1945년 8월 15일은 역사철사로 결박되었던 조선민족이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버린 독립만세의 우뢰소리로 동해가 끓고 산이 진동한 날이었으며 조선의 열, 조선의 기상과 혈액이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한 날이었다.

지난날 얼마나 연약하고 불행했던 조선민족이었는가. 울림의 봉선화야랑 너무도 가냘프고 처량하여 아, 조선아, 너는 왜 남과 같이 군세자를 못하느냐고 울분을 토한 문인도 있었고 민족개량의를 품고나선 우국지사들도 많았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령강들의 면전에서 배를 갈라 죽음으로 항거했고 《눈물젖은 두만강》의 노래를 부르며 정든 고향산천을 등지고 낯선 타향만리로 떠나가야만 했던 조선민족이었다. 사랑하는 누이들과 련인들의 어여쁨마저 지켜줄수 없었고 삼대독자의아들마저 왜놈의 대포발로 잃어야만 했다.

망국과 식민지노예살이는 누구도 원치 않았으나 국력이 약했던 우리 민족이 당한 슬픈 운명이었다.

우리 겨레가 나라를 빼앗기전에 군대수는 보잘것 없었고 무장장비라는것은 화승총밖에 없었다. 그런 허술한 군력으로 대포

와 함성을 가진 침략군대와 맞서 나라를 지킬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망국은 군력이 약함으로 하여 초래된 필연적인 운명이었다.

망국의 치욕을 씻어보려고 남 너로소모두가 눈물겨운 국제보상운동도 벌였고 민족적분을 안고 의병투쟁과 독립군화운동도 벌렸다. 또 3.1인민봉기와 6.10만세시위로도 벌려왔다. 그러나 그 모든것으로도 독립의 뜻을 이룰수 없었다.

인민의 하늘, 피눈물의 바다에 캄캄한 어둠뿐이던 이 땅에 민족재생의 밝은 빛을 뿌려주신 해방의 은인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다.

수만많은 민족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겨레가 당하는 괴로움과 슬픔을 뼈에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린시절에 아버님이 쓰시던 버루에 먹을 갈아 《조선독립》이라는 신념의 글발을 새기셨다. 그이께서는 14살 어리

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애국의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너셨다.

10대의 그 시절에 벌써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 제국주의와의 전면대결을 선언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새형의 혁명적부장력을 조직하시고 항일대전을 선포하셨다.

그때로부터 그이께서는 보통의 인간으로서의 도저히 견디어낼수 없는 혈전관리, 불바다만리를 헤치시였으며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셨다.

갖 조직된 청소한 유격대로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며 진행된 남북만진출, 두개 종대의 유격대력량으로 대포, 비행기로 무장한 적 5 000여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이룩한 소왕청유격구방위전투에서의 기적, 전민족적인 반일 민족동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의 창립, 일제의 야만적인 폭정 하에서도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준 보천보전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시련을 이겨내며 승리적으로 진행된 고난의 행군, 무산지구전투와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

국가적후방과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 맞서 승리만을 떨칠수 있는것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명군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었다.

간고쳐질했던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늘 생명을 위협하는 포연탄우적을 헤치시는 수령님에 대하여 과다하게 퍼진 전설은 그 얼마였던가.

김일성장군은 천기를 다스린다는 전설을 낳은 반절기전투, 교하의 아주머니며 북만진출의 나날들에 만나시였던 마로인과 김로인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어려운 곤경에 처하실 때마다 귀

인으로 나타나 도와준 평범한 인민들...

《1930년대초 전라남도 라주에서 보낸 나의 초등학교시절 김일성장군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귀몰하는 맹장이고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을 주름잡아 달리면서 일본놈들을 치는 장수라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그분의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은 한없이 부풀고 통쾌감을 언제나 신명나고 즐거웠다. 그분은 그대로 신화이자 전설적영웅이었다. 일본류군사관학교시절이나 해방후 부산에 돌아와서도 동료들과 김일성장군에 대한 비밀이야기를 자주 주고받곤 했는데 만일 그대 우리가 평양에 갔더라면 우리 인생은 180° 달라졌을 것이다.》

한때 남조선 군부의 요직에서 활동한바 있는 사람의 회고담이다.

진정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풍찬로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헌신에 의해 조국해방의 역사적업적이 이룩될수 있었다.

빛을 잃고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밝은 빛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을 세계에 온통 울려세우시었다.

우리의 나날 일부 사람들이 저마끔 남을 쳐다보며 주의주장을 내세울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민주조선건설의 길을 인민의 지향에 맞게 자주적으로, 독창적으로 개척하시었고 전후에는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었던 폐허우에서 복구건설의 기적을 창조하시였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100년이상이나 걸렸다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역사적업에도 단 14년동안에 이룩하시어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우시었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복무를 숭고한 사명감으로 지니시고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아버지수령님의 업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아버지수령님의 헌신이 어렸고 그이께서 민족만대의 유산으로 물려주신 자주, 자립, 자위의 주체조국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세기 90년대말 나라가 최초로 어려웠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폭압과 쫓겨남으로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천만리가 있어 사회주의조선의 운명이 구원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든든한 토대가 닦아지게 되었다.

은 나라의 불밝은 창가마다에서 웃음소리가 울려나오고 인민들의 얼굴마다에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될 그런 지상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나는 래일도 현지지도를 떠나려 한다고. 우리 인민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래일을 향하여 나는 기발을 들고 앞으로 절절한 말씀을 오늘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고 빛내주신 조선을 세계에 더욱 온통 울려세우주게시는분이기에 우리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시다.

나는 늘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념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자는것이 나의 결심입니다. ... 이것이 공화국의 력사와 미래

앞에 자신을 세우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바라시던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애국의 령도를 받으며 사람들은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분이 누구이신

가를, 조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가꿔가시는 위대한 창조자가 어스분으신가를,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위력을 만방에 떨쳐주시는 정의의 수호자가 과연 누구이신가를 가슴철철하게 새겨안고있다. 최근년간에 건설된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수많은 창조물들은 그이의 애민정치에 의하여 인민의 리상과 꿈이 어떻게 마련되고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4월전원회의에서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군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선언이라고 천명하시었다.

그이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선언은 그 승리가 확고히 담보되어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정당한 애국의 로선이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 인민존중, 인민사양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로고속에 공화국은 세계적인 전략국의 지위에 오르고 행성을 놀래우는 특대사변들이 련이 펼쳐져 민족의 존엄과 기상은 만방에 떨쳐지고있다.

그이의 걸출한 위인상과 비범하고 세련된 령도력, 탁월한 외교적탁에 매혹되어 초대국외로 자처하는 나라의 대통령도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 《충명하고 현명한 지도자》, 《강력하고 전략적인 지도자》, 《재능하고 멋진 지도자》 등 그 어느 외국수반들에게도 쓰지 않던 표현들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거듭 칭송하여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고 빛내주신 공화국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조국해방의 환희가 통일변영의 환희로 이어질 력사의 그날은 하루하루 앞당겨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

절대의 통일리념

주체67(1978)년 11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공화국에 체류하고있는 최덕신재미동포를 만나시었다.

최덕신재미동포를 반가이 맞으시고 그의 부친에 대한 회고도 하시며 따뜻한 동포애의 정을 나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라고,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분열이 비

록 외세에 의해 강요당했거지만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문제라고, 우리는 민족자주적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끼리는 그이의 절대 통일리념이었다.

단결은 민족의 힘

우리들의 이번 상봉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손잡고 함께 나아가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주체80(1991)년 12월 어느날 공화국을 방문한 문선명 전 세계평화연합 총재를 만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렇게 교하시며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온 민족이 조국통일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

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었다. 그러면서 우리 두사람이 단결하면 그 힘이 한사람의 힘보다 더 클것이며 이렇게 전체 조선민족이 단결하면 통일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단결은 힘이라고, 힘 가운데서도 제일 강한 힘이 사람의 단결된 힘이라고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민족의 통일속원을 풀어주시려고

조국해방 73돐이 다가오고있는 지금 우리 겨레는 한평생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민족사에 길이 빛날 크나큰 업적을 쌓아올린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모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위업이었고 념원이었다.

나라의 분렬로 하여 민족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었다.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신 그이께서는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반동일책동속에서든 거역의 통일위업을 줄기차게 이끌어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정국한 시기에 소집하신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리선회의는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통일정부를 세우려는 애국의 일념으로 총집결한 북남각계층 대표들의 력사적인 첫 회합이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장애가 조성될 때마다 투철한 민족자주정신과 통일의지로부터 출발한 대담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제시하시어 민족을 타개해나가신 그이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이 있어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줄기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3대원칙으로서 우리 민족이 나아가갈 조국통일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전체 조선민족을 하나의 통일력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북남최고외교회담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온 겨레를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도 불려오키시어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

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하시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우리 민족모두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통일대강을 마련해주시었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로 하여 두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었으며 우리 민족끼리를 근본리념으로 하는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6.15공동선언을 빛나게 장식한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생애야말로 끊어진 민족의 혈액을 잇고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실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실천으로 빛나는 절세의 애국자의 고귀한 생애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승리로 이끄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과 남이 합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천명한대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인민의 의의의 아버지 의의의 삼복철현지도

평안북도와 랑강도, 함경북도, 강원도를 비롯하여 온 나라각지를 현지도하시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대박, 기적창조의 새로운 생명을 지퍼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2단계현대화방향을 알아보고 계기되는 문제들과 해결방도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었다.

레년에 보기 드문 심한 고온과 무더위가 지속되는 속에서 이어지는 그이의 현지도를 가리켜 사람들은 《삼복철강현군》이라고 하고있다.

인민의 문명한 생활과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고 인민을 위한 일을 자신의 가장 보람있는 일로 여기시는 그이의 현지도는 그날 송산케도전차사업소로 이어졌다. 그이께서는 새형의 궤도전차를 보시고 인민을 위하여 정말로 보람있는 큰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오늘날의 별이라고도 부른 기분이 들뜬다고, 념중 이렇게 기분좋은 날이 몇달이나 되었는가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그날말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의 시운전도 지도하시며 우리가 만든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들이 거리를 누비며 달릴 때에는 정말 멋있을것이라고,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인민들이 바라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자는것이 바로 우리 당이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에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시는 숭고한 인민사랑

의 세계가 어려웠다. 삼복철의 고온과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쉬없이 이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는 자신께서 1년 고생한 조국은 10년 비약한다는 열화같은 인민사랑과 애국충정의 일념을 지니시고 견고있는 원수님의 신념의 길이다. 인민의 참된 총부,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리라는 엄숙한 맹약을 지켜 인민을 위하여 이어가시는 별사복부의 길이다.

인민들의 유쾌한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천해기공장을 현지도하시고 년간계획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시면서 해마다 3 000t의 메기를 어김없이 생산하여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인민들의 식탁에 구미에 맞는 식찬 한가지라도 더오르게 하시려고 보살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산포켓갈기공공장을 현지도하시면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것같은품들을 많이 연구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대한 별사복부정신을 지니고 것갈품생산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여 맛좋은 음식 못해하시었다. 그날말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의 시운전도 지도하시며 우리가 만든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들이 거리를 누비며 달릴 때에는 정말 멋있을것이라고,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인민들이 바라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자는것이 바로 우리 당이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에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시는 숭고한 인민사랑

를 무릅쓰고 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보아

홍은주

《압박외교》로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기적인 만남》으로 온 행성을 진감시킨 지난 6월의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공동성명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조미관계의 개선과 세계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인류의 가슴을 부풀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달이 되어오는 지금 조미관계는 얼마나 진전하였는가.

지난 7월초 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한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미국측은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적대할 단계별동시행동원칙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강도적인 《선 비핵화》주장만을 고집함으로써 조미관계를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국제사회에 커다란 실망을 주었다.

물론 지금도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우리의 선의어린 조치들에 대해 거듭 감사해하며 《대조선문제를 전입행정부로부터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서 넘겨받았지만 지금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있고 느낌도 좋다.》고 계속 언급하고있는것을 넘두에 돌 때 아직은 절망상대라고 불수는 없을것이다.

사태가 이쯤되고보면 미행정부로서는 평양에서의 협상을 틀어쥐힌 원인을 행정적에 찾아가고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방도를 강구하는것이 옳을것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안에서는 극히 온당치 못한 소리들이 울러나와 세상사들을 아연케 하고있다.

최근 조미협상을 전담한 미국무성에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 제재강화가 곧 협상력을 높이는 방도이라는 해괴한 주장들이 나오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미재무성도 조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 앞으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력설하고있다.

그를 립중하려는듯 미의회는 대조선 제재강화를 위한 관련법안들을 경쟁적으로 조각하고있으며 미국언론들과 전

문가들은 트럼프행정부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기조를 재확인하였다. 북조선이 비핵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의 압박》정책으로 전환할것이라며 제재여론을 고취하고있다. 지금 미국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개인들이 대조선제재결의를 위반하면 제재명단에 오를것이라고 협박하는 《주의보》까지 내리면서 국제사회에 제재결의리행을 강박하고있으며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우리 선수들을 지원하려는 체육기자재들까지 제재항목에 걸려 차단하면서 치졸하게 놀아내고있다.

대화상대방에 대한 상식밖의 《례의》이고 무도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앞에서는 대화관을 펼쳐놓고 뒤에서는 제재국판을 빌려놓는 수화상국의 이피이한 태도를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이가 나빴던 사람들이 서로 친하기로 약속한 다음에는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거지가 유언해지며 서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원심을 쓰는것이 상례이다.

오랜 세월 가장 적대적으로 대치해온 조미 두 나라의 경우에도 리치는 마찬가지이다. 서로 손을 잡고 세계를 향해 적대관계의 종식을 선포한것만큼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리해심과 존중심을 가지고 선의와 아량을 보이며 진지하게 노력하는것이 정상일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부핵시험장폐기로부터 미군유해송환에 이르기까지 조미관계개선을 위해 진정인 선의와 아량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반면에 미국은 말로만 관계개선을 떠

들면서 아무것도 리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반되게 행동하고있다.

세계여론들이 싱가포르공동성명발표 이후 지금까지 양측이 취한 조치들을 단순비교해보면 조선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것을 하였다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대조선제재를 강화하고있다고 하면서 《렘치없는 미국》이라고 혹평하고있는것은 너무나 엉당한 것이다.

미국의 정책들에게 묻건대 《조선은 통이 큰 대국이고 미국은 속속부라진 졸국이다.》, 《미국은 남에게 줄줄은 모르고 받기만 좋아하는 철부지처럼 행동하고있다.》고 비평하는 세계여론의 따가운 비난에 낮뜨겁지 않는다.

오죽하면 남조선에서까지 《조급증을 내는 미국은 그간 북조선의 체제보장에 대해 무엇을 해졌는가. 6.12북미공동성명에 대한 성실한 리행은 북미 미국보다 한발자욱이나 앞서고있다. 미국이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을 압박하고 제재하러고만 드는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는 소리들이 울러나오겠는가.

미국은 열성껏 풍구질하며 연출하고 있는 제재소동이 무엇때문에 세인들의 손가락질을 받고있는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시호가 지난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들에 근거하고있는 첩지난 개구리 울음과도 같은것이기때문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2356호와 2371호, 2375호를 비롯한 문서장들은 우리가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국가방위력을 완성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핵시험과 로켓 개발사들을 문제시하여 조각된것들이다. 우리가 모든 형태의 핵시험과 로켓

개발사를 전면금지하고 시험장들을 폐기하는 실천적조치들을 취하였으면 웅당 존재리유를 상실한 대조선제재조치들도 그에 상응하게 이미 사라졌어야 마땅하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 유엔에서 시호가 지난 대조선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러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얼마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대조선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할때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미국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한 사실은 그들의 머리속에 《제재집착증》, 《제재만능론》이 얼마나 화석처럼 굳어져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더욱 한심한것은 미행정부가 제재가 강화될수록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어처구니없는 공식을 외위대는것이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표현으로서 우리를 향해 쳐든 《방망이》인 제재가 어떻게 두 나라의 화친을 도모할수 있다는것인가.

《가는 방망이에 오는 흥두께》라는 조선속담그대로 제재가 강화될수록 거세질것은 우리 인민의 쌓이고쌓인 적개심의 폭발이고 날아날것은 모처럼 조성된 관계개선의 소중한 기회뿐이다. 미국의 협상팀들은 《미국은 정말로 미육하다. 제재풍음을 휘둘러대며 북을 자국시켜 주먹을 더욱 불끈 쥐게 하고있다.》는 어느 한 국제문제평론가의 비평을 깊이 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만일 미국이 저들의 제재압박에 못이겨 우리가 대화의 장에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세상사람들은 한결같이 조선에 《압박》이라는 책은 몽둥이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되였기에 미국이 대화에 나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악랄한 제재봉쇄속에 살아오면서도 못해낸것이 없고 이루지 못한 뜻이 없는 우리 인민이다.

그 어떤 외공과 역풍에도 끄떡없이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를 건설하였기에 우리는 야만적인 제재봉쇄속에서도 자립의 동음소리, 인민의 웃음소리를 높여올수 있었으며 존엄높은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미국의 《제재효과》란 우리를 핵강국의 지위로 이끌고 떠밀고 우리의 자강력을 배배해준것뿐이다.

그런데 선임대통령들의 실책을 답습하지 않을것임을 선언하고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성사시켜 새로운 력사의 첫걸음을 내디딘 트럼프대통령의 결단과는 달리 국무성을 비롯한 미행정부는 역대 행정부들이 반세기이상 지수하게 적용해오면서 교배만을 맞본 《제재압박전략》에 매달리며 과거에 뒤걸음치고있으니 회세의 회비국이 아닐수 없다.

구태에서 벗어나갈 모르며 기성의 강도관리에 집착되어있는 미국무성을 비롯한 판로집단은 선임행정부들이 실패한 교훈에 대해 깊이 고심해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와의 협상방식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있다는 사실, 잘못된 방식은 또 다른 실해를 낳게 된다는 리치를 깨닫게 될것이다.

웅당 해야 할것들, 상대방과 한 약속들을 리행하지 않고 저들의 요구만을 강박하는 제왕적사고방식과 《제재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언제 가도 원하는것을 달성할수 없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서로간에 신뢰를 공고히 하는것이다.

두 나라가 서로 손을 잡은 《세기적인 약속》은 그 무슨 《압박》이 가져온 결과물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이 안아온 력사의 기적이라는것을 명심해두어야 한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까지도 조미협상과 관련하여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신뢰부족은 여러면에서 미국을 반드시 패배시키는 적》이라고 주장하였겠는가.

미국사람들은 거버에서 신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다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야 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 대조선제재압박을 극성스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외교에는 문외한이고 몽둥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우직한 사고방식에 포로되어있는 정책들, 조미대화가 깨지고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정치적적수들이다.

이러한 세력들에게 휘둘러워 위대한 국제전환의 발걸음을 내디딘 조미관계가 지지부진하고 협상이 공전하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우리는 조미관계개신이라는 세기적인 대업이 성사되는 려정에 별의별 일이 다 있을것이라는데 대해 예상 못할것이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의 일시적관관을 공동의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부닥친 우여곡절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제재압박》이라는 구석기시대의 돌도끼를 버리고 신뢰와 존중의 자세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서는가에 따라 미래의 모든것이 결정되게 될것이다.

조남진

미국과 일본의 암묵적인 원자력 협정 연장 책동의 흑막을 폭로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백서

지난 7월 16일로 만료되게 된 30년기한의 범죄적인 미일원자력협정이 자동연장되었다.

1988년 만료기일 6개월전에 미국과 일본중 어느 한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게 되어있다.

올해 1월 16일같이 미일양측이 다 칙목을 지킨것으로 하여 결국 이 협정은 7월 16일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

1988년 7월 16일에 발효된 미일원자력협정은 미국이 일본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핵무기에 전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폐핵연료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늄추출과 우라늄농축을 허

용해준 천만부당한 협정으로서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규탄을 받아왔다.

그러한 어떻게 되어 세계에서 유일한 핵피해국인 일본이 그 가해자인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게 되었고 미국은 핵야망에 들떠있는 일본에 플루토늄보유를 허용해주는 기괴한 일이 이처럼 지속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암묵적인 원자력협정연장책동의 리면에 깔려있는 위협천만할 기도와 범죄적정체를 만천하에 낱날이 폭로하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세기를 이어 집요하게 추구해온 일본의 광적인 핵야망

력대로 일본반동들은 저들이 세계유일의 핵피해국으로서 핵무기보유와 사용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어왔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오래전부터 핵무장화의 야망을 품고 그 실현에 필사적으로 광분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당시에 벌써 일본이 《2호계획》과 《F연구》로 불리운 자체의 핵무기개발계획들을 작성하고 파썸이철란드로부터 기술협력을 받아가며 원자로개발에 달라붙었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1930년대초부터 핵연구를 진행해오던 일본은 1940년대에 들어서서는 군부가 직접 틀어쥐고 패망직전까지 원자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다가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핵세례를 당하였다.

그 이후 일본은 비밀리에 핵무기계획부터 작성하고 방대한 과학기술인력과 자금을 동원하여 핵무기관련기술과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켰다.

1956년에는 잠재적인 핵능력보유를 위해 핵연료재처리정체를 채택하고 1977년부터 플루토늄농축을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플루토늄의 대량확보를 위해 《문쥬》라는 고속중수로까지 만들었다.

1988년 미일원자력협정정체결후에는 다른 나라들의 폐핵연료까지 수입하여 재처리하면서 플루토늄추출에 광분하였다.

일본은 원자로피해로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한 미

국의 핵공격을 반대하기는커녕 목인하거나 오히려 비호두둔하며 지지해나왔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최초로 핵폭탄을 투하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힌 미국이 불과 몇년도 못되어 조선전쟁에서의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또다시 핵무기사용을 공공연히 떠들어댈 때 국제사회가 그를 강력히 규탄해나섰지만 일본만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1964년 10월 중국이 원자로시험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이후 당시 일본 수상이었던 사토 에이사구는 미국무장관에게 《중국과 경쟁하는 경우 즉시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해줄것을 기대한다.》고 뇌까려대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의 핵개발기도에 모르쇠로 하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

일본은 유엔안보리사회 5개 상임리사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생산이 허용되는 나라이다.

미국이 1988년 미일원자력협정을 통해 일본에 폐핵연료를 재처리할 권한을 부여해준 후 일본반동들은 지난 30년동안 핵무장화를 위한 플루토늄비축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핵야망을 묵인 조장하고 부추겨온 미국의 안락이 다른 이중적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여기에 저들의 범죄적인 핵야망실현을 합리화하고 그 명분을 마련하려는 일본의 간두한 속심이 깔려있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의 핵보유는 현범상 용인될수 있을뿐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한것》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꺼리낌없이 체재대은 우익보수정객들과 고위관리들의 궤변이 그것을 립중해주고 있다.

1957년 5월 당시 일본수상 기시는 《방어적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것은 위험이 아니다.》라고 강변하였으며 후임수상 이케다 하야토 역시 1961년 11월 미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공공연히 제창해나섰다.

1970년에 발간된 일본의 첫 방위백서에는 《핵무기보유를 정책적으로 부정하지만 방위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하는것은 평화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빼졌이 명기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정책적판단에 따라 어느때든지 핵무기보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것을 공언한것이 다름없다.

2016년 8월 5일 전 일본방위상 이나다 도모미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핵무기보유가 원천적으로 금지된것이 아니라 고 떠벌어내어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과 아베일당이 군사대화를 부르짖으며 자체핵무장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는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력대로 핵야망실현에 얼마나 집요하게 매달려왔으며 핵무장화광기는 갈수록 무분별해지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핵개발기도에 모르쇠로 하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

1950년대 중엽에 벌써 미국은 《원자력야살계획》에 따라 일본에 우라늄농축기술을 비롯하여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핵기술을 넘겨주었으며 1960년대말에는 시험용이라는 미명하에 365kg의 무기급플루토늄까지 제공하였다.

1976년에 일본의 재처리공장건설을 합해준것도 미국의 포드행정부였고 1977년에 원자로급플루토늄으로도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다는것을 일본에 암시해준것도 카터행정부였다.

1988년 7월 미일원자력협정체결로 일

본에 폐핵연료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늄추출과 우라늄농축을 허용해준것은 사실상 독자적인 핵무장화를 실현하려는 일본반동들에게 날개를 달아준것이 다름없다.

부위 2세의 보좌관이었던 데이비드 프람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을 비롯한 미국의 핵보유는 현실로 될수 있을 때마다 《미국은 일본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보유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일본의 핵보유는 현실로 될수 있다.》, 《일본측에 자체로 핵무기개발을 하면 안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가득이나 열에 뜬 일본반동들의 핵야망을 부추기였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무성이 나서서 2018년 7월로 미일원자력협정의 30년 유효기간이 끝나가는것과 관련하여 《협정을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검토할 의도가 없다.》는 립장을 발표함으로써 협정만료기일 6개월전에 그에 반하는 다른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못

일본의 핵무장화와 그로 인한 세계적인 핵재앙은 시간문제

미국이 적극적인 비호밑에 핵무장화의 길로 질주하여온 일본은 오늘 마음만 먹으면 임의의 시각에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1994년에 벌써 일본의 한 군수산업관계자는 당시 내각판관장관 구마가이 히로시에게 《기술적으로는 3개월이면 핵무기개발이 가능하다.》고 력설하였다.

2002년 일본의 한 고위정객은 《우리가 핵탄두를 생산하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들에는 수천개의 핵탄두를 제조할수 있는 충분한 량의 플루토늄이 있다.》고 떠든바 있다.

일부 외신들은 일본이 플루토늄은 물론 관건적인 핵폭탄제조요소들과 기술을 다 가지고있으므로 이미 원자탄을 만들었을수도 있다고 평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핵무장화책동이 이미 위협계선을 훨씬 넘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폐핵연료의 재처리과정에 나오는 플루토늄이원자탄제작의 기본원료이며 그 기술이 완성된것과 오래전 일이라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시기 일본은 자국내에서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로부터 핵연료를

을 받았다.

이에 대해 광범한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내에서까지 일본이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사실상 플루토늄을 원자력발전기에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대량보유하는것은 원자탄공격을 받은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것이다, 일본이 과도한 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있는것은 핵무장화로 나아가 우려가 있다, 미일원자력협정을 재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의 목소리들이 울러나왔다.

말하자면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요구하는 불공정한 원자력협정재정에 대해서도 무작정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은 미일원자력협정의 자동연장 등으로 특혜를 주고있는것이다.

력사적으로 일본에 대해 취해온 미국의 이러한 표리부동한 립장과 태도를 방편으로 삼고 일본반동들은 잠시도 중단없이 독자적인 핵무장의 길로 줄달음쳐온것이다.

일본의 핵무장화와 그로 인한 세계적인 핵재앙은 시간문제

사들이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다른 나라가 핵탄에서 해제한 핵연료와 바다속에 버린 폐핵연료까지 끌어들이였다.

그리고 거액의 자금을 들여 순도높은 플루토늄을 생산할수 있는 폐속반응로를도 개발하였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비축된 플루토늄량은 518t으로서 그중 일본이 보유하고있는 량은 47t에 달한다.

사람들은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로 피해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것이였는가 하는것을 오늘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플루토늄을 47t이던 나가사키에 투하하였던것과 같은 핵폭탄 7, 800여개를 만들수 있다고 한다.

지난 시기 전폐국, 전범국으로 국제적십단체에 올라섰던 일본이 미국의 비호밑에 오늘 어떤 위협한 세력으로 등장하였는가.

사들은 이처럼 심각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반동들은 미일원자력협정을 자동연장시키는 반인륜적, 반평화적범죄를 또다시 공공연히 감행한것이이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상건의

적국적인 비호와 묵인조장하에 기어코 군사대국화를 이루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섬나라족속들과 《독례적인 선심》으로 하수인을 걸어쥐고 아시아제패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셋먹으려는 미국의 공포결락의 산물이다.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수천개의 핵폭탄을 만들수 있는 방대한 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원자력협정까지 자동연장해가면서 핵무장화를 부추기고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우리에 대해서는 《보다 신뢰성있는 조치》니, 《비핵화의혹》이니 하며 점잖지 못하게 놀아내는 미국고위정객들의 량면적태도이다.

상건의 저드랑이에 달라붙어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든지도 모르고 《북의 비핵화전까지는 강도높은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앙말을 부러대는 일본것들의 행태는 더욱 역스럽기 그지 없다.

미국이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웅당 일본의 핵무장화책들을 문제시해야 하며 공정한 립장에서 사태를 평가하여야 할것이다.

일본은 저들의 그러한 경망스러운 태도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비참한 자멸만을 재촉하게 된다것을 똑바로 알고 자중, 자숙하여야 마땅하다.

미일원자력협정의 자동연장으로 일본반동들의 핵광기는 더욱 로골화되게 되었으며 미국은 세계평화와 안전의 파괴자로서의 흉상을 또다시 적라라하게 드러내게 되었다.

세계평화에호인민들과 국제사회는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이 위협천만한 범죄적행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민중적하게 수호하고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을 지향해나가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도 핵공격과 위협으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온갖 원수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며 인류를 핵합화에 서 구원할 세력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면에서 국제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나갈것이다.

동족과 손을 맞잡아야 한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남조선의 각계층에서는 남북통일기운과 협력, 교류협력이 전례없이 고조되었다.

최근의 여론조사들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7%에 달하고 특히 지난 시기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20대 청년층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지난해의 39%에서 74%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의 전반지역에서는 《통일박람회》, 《남북하나통일예술대공연》, 《영화, 통일주체의 영화제작》, 《북도배우기》, 《북음식 먹어보기》와 같은 다양한 통일주체의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경제, 재계, 학계,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장기 침체위기에 빠진 경제와 약화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남북경제협력뿐

이라고 하면서 《정부》와 대기업주도의 적극적인 북남경제협력을 주장하고있는가 하면 지난 시기 《대북투자》를 《모험》으로 간주하고 꺼리던 대기업들도 《특별법》을 조직하고 경제협력방안들을 연구하고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남조선에서는 《북미협상의 교착상태》를 운운하며 《선언리행은 남과 북이 잘해서 될 일이다.》,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온당치 못한 발언들이 울려나오고 있다.

이것은 남북관계개선과 평화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사변적의자책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특히 미국에 아부하여 《대북제재유지》를 떠들어댄것은 미국의 힘이 없는 남북관계

를 한반도적 전진시켜나갈수 없다는것을 스스로 고백한 친미중립행위이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상봉과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에서는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체제문제가 합의되고 내외에 공표되었다.

미국이 종전선언체제문제를 단거리적이며 동시적인 행동조치를 통해 호상신뢰를 실천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비핵화문제가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할수 없다.

미국의 대조선제재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처사로 하여 오늘 판문점선언도 상당한 결실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과 남사이에는 여러 갈래의 사업들이 분방하게 벌어지고있지만 결만 번지르르할뿐이다. 여기저기에서 무엇을 한다는 여론만 무성할뿐 그 어디서도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다.

제재압박과 관계개선은 절대로 양립될수 없으며 주대없이 외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면 남북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할수 없고 돌이킬수 없는 후과만을 초래할수 있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외세의 눈치를 보며 오솔길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동족과 손을 맞잡고 대동로로 나아가야 하며 대양민리를 찾아다니느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 민족우선, 민족공조의 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판문점선언리행의 일방으로서 마땅히 책임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본사기자 최광혁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필수적공정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에서는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대전지역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와 4개 종교단체는 7월 26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종전선언 약속리행으로 《한》반도의 항구적평화체제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해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북측이 여러가지 인도적조치, 비핵화의 첫 조치를 리행하는 상황에서,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구축의 첫 조치로서 종전선언은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종전선언의 채택문제는 바로 오래동안 지속되어온 조선반도의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역사적과제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조선반도에는 아직도 전쟁위험이 가시여지지 않았다.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경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될것이라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올해에 들어와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마련되고 북남관계,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지만 조선반도에서의 종전은 아직

도 해결을 기다리는 과제로 남아있다.

더우기 종전선언체제는 북남, 조미사이에 이미 합의된 문제로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선차적이고 필수적인 공정으로 된다.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북, 남, 미 3자 또는 북, 남, 중, 미 4자회담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역사적인 싱가포르수뇌회담공동성명을 통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 한일혁

공화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조미수뇌회담에서 합의한대로 북남관계,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고있으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그러나 미행정부는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문제를 이리저리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뒤로 미루어놓는채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에 대하여서만 떠들어대고있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었다는 말이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종전선언의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6.12조미싱가포르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최근 남조선언론들이 《필연으로 다가온 남북경협》이라는 제목으로 남조선의 경내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한국〉경제의 신음소리가 레사롭지 않게 들린다.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경제의 성장률 전연일고 일자리를 창출해온 제조업이 흔들리고 국제경쟁심화와 높아지는 관세장벽이 기업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있다. 여기에 고령화, 청년실업률상승 및 소득불균형문제 등도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다. 〈한국〉은 당장 몇년뒤에 무엇을 먹고살아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이것은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남조선의 경제위기를 그

대로 반영한것이라 해야 할것이다.

지금 남조선언론들과 경제전문연구기관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면 기술력, 로동력, 자원이 풍부하고 더우기 지경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북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남경제협력을 남조선경제를 살릴수 있는 《최대의 기회》이고 《유일한 출로》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들은 북남경제협력은 남조선의 제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할것이며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있는 부동자금》의 활로를 열어줄것이다. 북남경제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다가와

다고 평하고있다.

여당의 한 의원도 《남북관계를 개선해 개성공단 등 북에 진출하는것으로 〈한국〉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같은 시설을 북에 100개 만든다면 남남에 1개 기업들이 모두 돌아와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살아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판문점선언체제이후 남조선대기업들은 공화국의 거부구조와 운송을 비롯하여 기액의 투자가 요구되는 부분들에 대한 협력에 나서려고 움직이고있으며 금융업계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면서 《〈정부〉가 기업

들이 자발적으로 대북투자에 참가할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저들 내부에서 울려나오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대신 북남교류협력을 가로막는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추종하여 《여건조성》타령만 늘어놓는 남조선당국의 행위를 결국 스스로 제발목을 묶어두고 경제는 물론 북남관계전반을 파국에 몰아가는 어리석은 처사로 남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추종할것이 아니라 북남사이의 협력을 바라는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박영길

기관을 벌려놓는 미국의 처사야말로 너무나도 무도한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횡포한 간섭이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가로막는 강도적폭거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추종하여 《여건조성》타령만 늘어놓는 남조선당국의 행위를 결국 스스로 제발목을 묶어두고 경제는 물론 북남관계전반을 파국에 몰아가는 어리석은 처사로 남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추종할것이 아니라 북남사이의 협력을 바라는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박영길

조국통일범 민족련합 남측본부 조국통일축진대회 준비위원회 결성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2일 조국통일범 민족련합 남측본부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민족자주와 대안결을 위한 조국통일축진대회 준비위원회결성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조국통일범 민족련합 남측본부는 지금 정세는 우리 민족끼리 손을 굳게 잡고 반의,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전민족적인 반미공동투쟁의 힘을 모아나갈 때라고 하면서 조국통일축진

대회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를 반드시 개최하자고 알리는 첫 대중적인 집회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이 채택되고 6.12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된대해 지적하면서 조선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온것은 아니며 북남관계역시 이제 첫걸음을 떼며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평화를 위협하고 판문점선언리행에 장애를 조성하는 온갖 행위를 단호히 배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당면하게 대북적대정책 완전폐기, 평화협정체결, 조선반도전역 비핵화실현, 미군철수 등의 구호를 들고 민족문제에 대한 미국의 오만무도한 간섭과 전횡을 끝장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였다.

끝으로 단체는 앞으로 오는 14일과 15일 민족의 자주와 대안결을 위한 조국통일축진대회를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 등 각계각층과 공동으로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 전시기 남조선정부가 작성한 군사쿠데타계획들이 날 날이 드러나는 속에 그것이 만일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계획》이 아니라 역도년과 군부가 치밀하게 계획한 위험천만한 범죄라는것이 더욱더 명백히 드러나 민심의 중요를 자아내고있다.

이미 밝혀진것처럼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문건들은 계엄명령포시 《국회》와 언론장악, 《국회》의원체포, 대규모적무력투입과 미국정부의 승인에 대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다.

만일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남조선에서는 광주대학살과 같은 끔찍한 사태가 재현되었을것이다.

하기에 민주개혁정당들과 남조선 각계층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이 섬적하다, 황교안은 물론 박근혜도 무조건 수사하라고 하면서 쿠데타음모에 가담한자들에게 대한 수사와 기무사령부의 대대적인 개혁 무범의 광행행위, 민주말살행위이다.

남조선은 피의 목욕탕, 인간도살장으로 만들려고 획책한 국악한 살인마들을 력사의 교수대에 내세워 단호히 징벌해야 한다는것이 남녘각계의 울부짖음이다.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정치적의도가 의심된다. 《투출경위를 따지겠다.》고 떠들며 《문제인정부 군기문란진상규명특별법》이라는것을 조처하여 보수 《정권》시기의 쿠데타음모사건을 무마시켜보려고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민심의 총칼로 가로막아보려는 불법

돌려보려는 공범집단의 가소로운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속에서 지금 남조선당국은 기무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진행하고있다. 이에 따르면 기무사의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이 조직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군사전문가들은 이번의 조치가 사실상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

운 준정보기관을 내오는 조치라고 하면서 류레없는 일이라고 하고있다.

기무사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면서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꾸기로 한것은 기무사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를 명백히 실증해준다.

본사기자 김응철



남조선의 《자유한국당》내에서는 친박근혜파와 김부성과, 홍준표파, 중립파 등 여러 파벌들이 치졸하게 그 지없는 주도권싸움을 벌리고 있어 내외의 비난거리로 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2016년까지만 해도 당내에서 70%의 거대파벌을 이루고있던 친박근혜파가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선거후 파의 우두머리들인 서정원의 탈당과 최경환의 재판회부포 구심점을 잃으면서 내부분열이 더욱 심화되어 소속의원이 10여명정도에 불과한 소수파로 전락된것이다.

반면에 박근혜탄핵당에서 뛰쳐나갔다가 전당대표 홍준표와 손을 잡고 부당하여 원내대표 김성태, 사무총장 김용태를 비롯한 측근들로 사실상 당권을 장악한 김부성이 계파화합을 떠들면서 세력을 확대하여 김부성파가 25명의 의원들을 가진 최대계파로 두세하였다.

당내에 자파세력이 한명도 없는 《비상대책위원회》위헌장 김병준은 친목과 정책론의 명목으로 《포용과

망한 집안의 개싸움》과 《통합과 전진》, 《보수의 미래포럼》 등 각종 의원모임들과의 정책협의를 벌려놓으면서 자기 지반을 구축해보려 하고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주류로부터 구심점을 잃고 소수파로 전락된 친박근혜파와 당권장악을 노리고 세력파대에 몰두하고있는 김부성파, 기존지위회복을 위해 권보술수를 다 쓰고있는 전당대표 홍준표파 등 각이한 계파들로 세력관계가 재편되어 당내에서의 주도권싸움이 날로 치열해지고있다.

망해가는 집안에 싸움짓을 날 없기마련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주도권잡기에 미쳐달취고있는 김부성으로 말하면 골수 친미사대분자, 극악한 반공합을 떠들면서 세력을 확대하여 김부성파가 25명의 의원들을 가진 최대계파로 두세하였다.

당내에 자파세력이 한명도 없는 《비상대책위원회》위헌장 김병준은 친목과 정책론의 명목으로 《포용과

파와의 전쟁》, 《총목척결》소동에 광분하다 못해 북남수뇌상봉담화록까지 의욕공하며 발악해나섰던 자이다.

가관은 《당내에 좌상이 없다.》며 자신을 배척해나선 박근혜에 앙심을 품고 탈당하였다가 다시 기여든 김부성이 자기 세력을 확대해나가는데 오금이 저린 친박패거리들이 《김부성이 친박완전죽이기에 나섰다.》, 《철회수리가 당을 정평했다.》, 《당의 정체성이 없었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덩벼드는것이다.

한편 언론들은 김병준이 《보수의 힘》과 《계파갈등형산》을 운운하고있지만 그것은 《자기포장》에 지나지 않으며 《진짜속심은 대선출마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데 있다.》, 《당내(대권) 경쟁자인 김부성이 김병준을 필요만큼 써먹은 다음에는 필요없겠다》이라는 평을 내려 《자유한국당》내부의 싸움에 더욱 부채질을

하고있다.

이를 두고 남조선항간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골백번 탈바꿈을 해도 리명박과 박근혜의 추악한 범죄에 공모, 가담한 공범당으로서의 오명을 지워버릴수 없으며 오직 완전해체만이 정답》이라는 지란이런 일 터져나오고있다.

민심을 등진자들에게는 앞날이 없다.

본사기자 김명성

그 누가 이미 망해버린 《자유한국당》에서 《주도권》을 잡는다고 하여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힌 저들의 가련한 운명을 진질수 있겠는가.

이미 《회복불능상태》에 빠진 반역당의 고질적인 병집은 무슨 수로도 고칠수 없다.

망해가는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력사무대에서 깨어 사라질 날이 멀지 않

독재권력의 파수꾼이었다

남조선에서 리명박, 박근혜역도가 집권하고있던 시기 대법원 원장직을 차지하고있던 량승태와 그 줄개들이 사법권을 랑용하여 저저는 가지가지의 죄악들이 계속 드러나 사회적비난여론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사법행정권람용의혹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6월 법원행정처사무실에서 발견한 400여건의 문서들을 조사한데 의하면 량승태와 그 일당은 사법부를 저들의 정치적보락도구로 전락시키고 보수 《정권》을 유지하려는 박근혜에게 유적 추종하면서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수없이 내리고 진보적경향의 판사들에 대한 사찰행위를 감행하는 등 온갖 파조적인 악행들을 수없이 저질렀다. 뿐만아니라 박근혜의 탄핵에 대비한 재판전략을 세우고 보수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도록 하기 위한 여론공작도 대대적으로 벌리었다.

량승태와 그 일당이 독

재권력의 노복이 되어 저저는 죄악은 이뿐이 아니다. 그들은 법의 칼날을 마구 휘둘러 친박세력에게는 무죄판결을, 야당소속의원들과 진보적인사들에게는 유죄판결을 내리는 등 반역통치의 파수꾼, 변호인노릇과 같은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과 광범한 시민단체들은 법을 위반하고 사법을 봉단한 량승태를 살려둘수 없다, 사법봉단세력이 박근혜의 《국정》봉단을 법적으로 조력하였다. 사건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국민의 힘으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들고일어나고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국민이 사법부정회화를 우려하고있다.》, 《재판거래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떠들면서 량승태와 그 일당이 저저는 죄악들을 적극 감싸주고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박

근혜는 물론 량승태일당과도 같고같은 한배속이라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량승태일당의 불법무법의 죄행을 비호둔둔하는 《자유한국당》의 추태는 역직당이 존재하는 한 남조선인민들이 요구하는 적폐청산투쟁이 제대로 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에서는 사법권을 틀어쥐고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각계층의 통일애국운동을 악랄하게 탄압한 박근혜와 함께 수주할개인 량승태는 물론 《자유한국당》도 적폐대상으로서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매일과 같이 터져나오고있다.

박근혜가 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를 비롯하여 법원의 모자를 쓴 시정배, 인건추출물과 한직이 되어 민주주의적권리를 무참히 유린한 사법부봉단사건의 진상은 민심의 요구대로 날날이 밝혀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